

## “코로나 4단계 격상 방역조치 강화”

공원·녹지·체육시설 등 50여곳 특별단속반 편성, 야간음주 단속

유흥주점 집합금지-노래방, PC방, 음식점 등 주 1회 이상 수시 점검  
오류동역·구로디지털단지역 선별검사소 추가, 모두 4곳 운영



구로구가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3층 르네상스홀에서 이성 구청장 주재로 부구청장을 비롯,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분야별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구로구가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분야별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구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로구는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공원, 녹지, 체육시설 등 50여 곳을 대상으로 5개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되며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공원 내 벤치, 파고라 등

휴게시설에는 거리두기를 위해 안전띠도 설치했다.

노래연습장, PC방, 음식점은 저녁 10시 이후 운영 제한,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유흥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 금지 사항에 대해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수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업주·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노래연습장, PC방은 이달 28일까지, 음식점, 카페 등은 8월 21일까지 코로나19 선제검사도 실시한다. 해당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위한 임시 선별검사소도 확대 운영한다. 23일까지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장)에 서울시의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평일과 토요일에 운영한다.

또 지난 14일부터는 오류동역 북부광장(3번 출구)에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되던 구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로역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실내·외 구립 체육시설은 미운영되며, 민간 실내체육시설도 기존 4㎡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샤워장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 특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은 전원 휴원 조치하고 긴급보육의 경우만 운영되며 외부인 출입, 특별활동, 집단행사 등은 금지된다. <채홍길 기자>

## 이성 구청장, 서울지구청장협의회 회장 선출

내년 6월까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공동회장단으로도 활동

이성 구청장(사진)이 민선7기 4차년도 서울지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9일 제161차 서울지구청장협의회가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서울지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 간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서울시 등에 회의결정 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행정협의체다.

이성 구청장은 협의회 사무총장으로 박성수 송파구청장을 지명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협의회를



대표해 회의를 이끌어 간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단으로도 활동한다.

한편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장은 신정욱 전 도시재생과 팀장이 내정됐다. 신 팀장은 지난 12일자 인사에서 기획예산과로 전보됐다.

<김유권 기자>

## “구로를 빛낸 구민 추천해 주세요”

제31회 '구로구민상' 후보자 8월13일까지 접수  
봉사·문화예술·지역사회발전 등 9개 부문

구로구가 '제31회 구로구민상' 후보자를 오는 8월13일까지 추천 받는다.

구는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모범 구민을 발굴해 구민들의 귀감이 되도록 매년 '구로구민상'을 시상하고 있다.

시상은 봉사, 효행, 문화예술, 교육, 생활체육, 지역사회발전, 안전, 경제발전, 환경 등 9개의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분야별 공적이 우수한 후보자가 선발된다.

후보자 자격은 시상일(9월29일) 기준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다.

접수방법은 추천서와 공적조

서, 이력서 등을 작성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구청 자치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soheeya@guro.go.kr)로 제출하면 된다.

부문별 관계기관·행정기관 등 특단체의 장과 구의원 2인 또는 구민 30인 이상, 초·중·고 학교장, 대학총(학)장 등이 추천할 수 있다.

구로구는 8월 중 공적내용 사실조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9월 말 시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김유권 기자>

Daum 서울오늘신문 검색하면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www.songlimga.com

###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준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中食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 구로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 연기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따른 코로나19 대응 집중”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가 선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임시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구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철수)에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예정된 제3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조치는 12일부터 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됨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추진됐다. 위원들은 이번 주가 지역 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는 결정적인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 행정력을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집중할 수 있

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구로구의회는 일단 16일 개회 예정이었던 제303회 임시회 일정을 잠정 연기하고 지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본 후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구로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 6월말에 활동기간이 만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김철수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급박한 시기인 만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임시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여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웅 의장은 “이번 임시회 연기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구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며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 차단을 위한 마지막 수단인 만큼 주민들께서 모조록 2주간은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덧붙여 “휴가철과 맞물려 4차 펜더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로구의회가 앞장서서 46만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 이성 구청장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공로패’ 수상

구로구가 지난 7일 경기도 화성시가 주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0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이성 구청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으로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증진과 내·외국인 주민의 통합을 위한 정책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이성 구청장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동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으로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증진과 내·외국인 주민의 통합을 위한 정책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오른쪽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임병택 시흥시장>

이번 정기회의에서 ▲기관 명칭 일원화 및 행정체계 통합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회 제공 ▲외국인 주민 지원시설 비대면 강의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성 구청장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 그간의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27개의 회원도시가 협력해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 톨링힐스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회의에 이성 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임병택 시흥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이 참석했다. 그 외 17개의 회원도시 단체장 등은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통한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이날 이성 구청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으로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증진과 내·외국인 주민의 통합을 위한 정책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이성 구청장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 그간의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27개의 회원도시가 협력해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 과장·팀장급 65명 등 6급이하 184명 전보 인사

## 환경과장 이경택(서울시서 전입)

의정팀장 천현웅  
기획팀장 양성주  
감사팀장 최문정

구로구는 지난 7월1일자로 과장급 승진, 전보인사에 이어 7월 12일자로 6급 팀장급 64명과 7급 52명, 8급 50명, 9급 18명 등 6급이하 전보와 전입,전출, 교육과전,복귀 등 모두 184명을 인사 발령했다. 또한 서울시는 오는 7월26일자로 구로구 환경과장에 이경택(서울시 녹색에너지과 화공사무관)을 전보 발령했다.

### ◇6급 팀장급 전보(괄호안은 전근무부서)

▲구의회 의정팀장 천현웅(구로5동) ▲의사팀장 이희성(교육복지)▲감사실 감사팀장 최문정(여성정책과) ▲계약심사팀장 최형란(문화관광과) ▲대의정책담당관 대외정책팀장 박영숙(대의정책담당관) ▲대의협력팀장 이효무(주차관리과) ▲기획예산과 기획팀장에 양성주(기획예산과) ▲예산팀장에 라현정(구의회사무국) ▲신청정육 기획예산과(도시재생과) ▲일자리지원과 사회경제팀장 박

수련(교육지원과) ▲청년지원팀장 사회선(구로5동) ▲여성정책과 여성지원팀장 서주희(자치행정과) ▲상호문화정책과 외국인지원팀장 변성미(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 학교지원팀장 김은아(신도림동) ▲학습지원팀장 구자방(개봉2동) ▲주택과 주택정비팀장 김남기(구로2동) ▲환경과 에너지절약팀장 고정림(구의회사무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장 윤진노(주차관리과) ▲도시안전과 안전기획팀장 지수용(개봉1동)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이용호(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 임은주(총무과) ▲보행자전거팀장 문기현(개봉3동)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장 남일우(도시안전과) ▲총무과 후생팀장 김옥순(일자리지원과)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장 김주현(구로3동)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과전 김준태(개봉3동)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김복기(감사실)▲가족관계등록팀장 장혜경(개봉1동) ▲청소행정과 청소기획팀장 김윤재(청소행정과) ▲청소운영팀장 백석운(상호문화정책과) ▲스마트도시과 스마트기획팀장 최미란(일자리지원과)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장 문정화(대의정책

담당관) ▲신도림동 복지건강1팀장 김민정(신도림동) ▲구로3동 민원행정팀장 김수경(구로3동) ▲구로4동 복지건강1팀장 김정희(개봉2동) ▲구로5동 민원행정팀장이문숙(구로5동) ▲구로5동 복지건강1팀장 최혜빈(환경과) ▲구로5동 복지건강2팀장 전진원(구로5동) ▲고척1동 민원행정팀장 김수겸(개봉2동) ▲개봉1동 민원행정팀장 박춘석(주택과) ▲개봉1동 복지건강2팀장 김명훈(개봉1동) ▲개봉2동 민원행정팀장 조상기(건설관리과) ▲개봉3동 민원행정팀장 이영미(개봉3동) ▲개봉3동 복지건강1팀장 오세욱(민원여권과) ▲개봉3동 복지건강2팀장 김선호(교통행정과) ▲오류2동 복지건강2팀장 조영선(고척1동) ▲징수와 징수1팀장 조영성(부과과) ▲징수와 세외수입팀장 임완중(부과과) ▲징수와 38세금징수팀장 나미향(부과과) ▲부과과 재산2팀장 정대기(징수와) ▲부과과 자동차세팀장 최영선(징수와) ▲부과과 지방소득세2팀장 광운순(징수와) ▲부과과 주택평가팀장 송계수(징수와)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장 최용진(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이수형(구로4동) ▲박재현 지역경제과(오류2동) ▲이미경 재무과(건설관리과)▲김형석 부동산정보과(구로4동) ▲김경옥 주차관리과(자치행정과) ▲김봉현 구로4동(고척2동) ▲신순복 민원여권과(자동차관리과) ▲전영덕 부과과(교육복지).

〈채홍길 기자〉

# “청소년 전용 앱 ‘구청장’ 보셨나요”

## 청소년 정책 정보 제공... 청소년 제안 의견도 반영 ‘행사축제’ ‘참여’ ‘지원’ ‘소통제안’ 등 8개 메뉴로

구로구가 ‘구로구 청소년 참여의 장(약칭 구청장)’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홍보에 나섰다.

구는 “청소년들이 정책, 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청소년 전용 앱 ‘구청장’을 배포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청소년들의 구정 참여기회 확대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구로구는 지난해 청소년의회를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18세 청소년의원들이 모여 필요 정책을 발굴해 구청에 직접 제안하는 활동을 펼친다.

구로구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나 지원 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용 앱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전문업체와 함께 개발을 시작해 올 3월 제작 완료 후 구글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와 애플 앱스토어(아이폰)를 통해 배포했다.



‘구청장’ 앱은 ‘행사·축제’ ‘참여’ ‘지원’ ‘내 주변엔?’ ‘다른 지역엔?’ ‘소통·제안’ ‘공지사향’ ‘문의사항’ 등 8개 메뉴로 구성됐다.

관내 행사, 전시회, 프로그램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장학제나 청소년 쉼터, 대안학교 등 각종 지원 정책도 알 수 있다.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교육시설, 보호시설 등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는다.

이 밖에도 관외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 쉼터공간, 네트워크 등도 링크를 통해 연결된다.

구로구는 앱을 소개하는 리플릿도 제작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 관련 시설,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총 4,500부를 배부했다.

〈김유권 기자〉

주간	<b>구로오늘신문</b>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 02)830-0905 메일 :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 유희상 주간 : 한만수 등록번호 : 서울 다-5105 구독 / 광고문의 010-9096-1144	발행인 : 김유권 편집국장 : 채홍길	구독료 : 월 5,000원 : 연 50,000원 기사제보 : 02)830-0905 계좌번호 :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 여름 휴가 돈 써가며 멀리 갈 필요 없다

올해 장마 끝 더위는 그 어느해 여름보다 더울 전망이다. 장마가 끝난 후 땀벌 더위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 휴가철에 접어들었다.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등 곳곳에서 여름 맞이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예년처럼 여름에 맞춰 휴가를 떠나도 될지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휴가지에서도 거리두기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인파를 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가을 이후에도 코로나19가 대유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휴가를 미루기보다는 여름 휴가철에 사용하되 도심을 벗어나 야외로 떠날 것을 제안한다.

본지에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 알차게 여름 휴가를 보낼 명소를 찾아 봤다. 관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눈여겨 볼만한 곳은 야영장, 오토야영장,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9월 개장한 '천왕산 근린공원 가족캠핑장'이다.

**<876호 3면 보도>**

또한 멀리가지 않고도 자연 속에서 더위를 피하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과 숲속에 있는 장서가 풍부한 시립 고척도서관과 글마루한옥어린이도서관을 찾아가 보는 것도 알차게 여름피서를 보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제 곧 초중고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본격 휴가철이다. 휴가 돈 써가며 멀리 떠날 필요 없이 관내 천왕산 가족캠핑장이나 도서관에서 더위 피하고 책 보며 지식을 쌓는 것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신도림역 선상역사 '문화철도 959' 도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가볼만한 장소이다.

## ■ 온수골서 등산과 체력단련을

옛날 온수골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지역 일대가 더운물이 나왔기 때문에 온수골이라 불렀다. 공동은 조선 선조의 일곱째 정선옹주가 이곳에 살던 길성군(吉城君) 권대임(權大任)에게 출가하여 살던 집이 여기에 있었으므로 궁궐 같은 큰집이 있다 하여 불여진 이름이다.

서울시의 남서 측 양천구와 구로구에 걸쳐 있고 시 외각으로는 부천시가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경인국도 동쪽으로 남부순환로 북쪽으로 경인고속국도와 접하여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

1971년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임상이 양호하며 식생이 다양하고 수목 등 식생이 잘 보존된 전형적인 자연상태의 공원이다. 연간 18만여 명의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다. 등산로 주변에 약수터와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의자 등 휴게시설과 철봉, 허리 돌리기 등 운동기구가 등산로 곳곳에 설치되어 구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 ■ '문화철도 959' 어른신도 활용

'문화철도 959'는 신도림역 선상역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신도림역 선상역사는 하루 평균 50여만 명이 이용하는 신도림역의 혼잡함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 5월 신도림역의 국철 1호선 역사로 건립됐다.

인근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편리하게 연결돼 있고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과 접근성이 좋은 역사다. 총 579.8㎡ 규모로 조성된 문화철도 959는 신도림역의 상징성을 살려 기차와 플랫폼을 테마로 디자인돼 눈길을 끈다. 문화철도 959의 이름은 문화예술공간과 철도역사라는 의미

## 도서관서 더위 피하고 책 보며 지식도 쌓고 신도림역 선상역사 '문화철도 959' 도 가볼만 편의시설 갖춘 '천왕산 가족캠핑장' 안성맞춤

에 구로구를 숫자로 표현한 959를 더해 명명했다.

문화철도 959는 2층에 북&키즈카페가 조성됐으며, 3층에 예술창작소 5개실과 문화교실이 들어섰다.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공간인 북&키즈카페는 친환경 편백놀이존, 미니기차, 볼풀장 등을 갖추고, 유아 중심 서적 2000여 권도 구비됐다.

특히 증기기관차 모양의 요금소와 기차 객실 형태의 북카페는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차를 마시며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미니 열차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급한 불일이 있는 부모를 위한 자녀 잠깐돌봄서비스도 진행된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입장료는 12~24개월 미만 영아는 3,000원, 24개월~미취학 유아는 5,000원, 초등학생~성인은 2500원(음료 무료 제공)이다. 지역주민이나 단체는 20% 할인된다.

또한 작가들의 창작공방인 예술창작소에는 시각, 산업, 공예, 영상, 회화, 일러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 20여 명이 입주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펼친다. 입주작가들은 창작활동 외에도 문화교실 강의 등 주민을 위한 지역 환원 활동도 전개한다. 입주작가 중 일부는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채용되며,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물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목적 공간인 문화교실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취미와 교양문화강좌를

위해 사용되고,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회원들의 회의장소로도 대여해주고 있다.

## ■ 숲 속의 고척도서관서 피서를

관내 고척도서관은 도서관이건에 공원에 있는 복합문화시설 같다. 수목이 우거져서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더위를 피하기도 좋다. 고척도서관 1층에 있는 어린이실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토, 일요일은 문 닫는 시간이 한 시간 빠른 오후 5시다.

2층에 있는 종합자료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디지털자료실 문 닫는 시간은 오후 6시다. 토·일요일은 어린이실처럼 오후 5시에 문을 닫는다. 매월 둘째주와 넷째 주 수요일은 문을 열지 않는다.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다.

올 여름에는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4차 사업 혁명시대, 양육 패러다임을 바꿔라'(7월5일~7월25일) '공감과 연대의 미술관'(6월29일~7월 15일) '예비 중학생 부모를 위한 집중 공부 기술'(7월1일~7월 22일, 매주 목요일) 등 다수가 있다.

## ■ '글마루 한옥어린이도서관' 도 인기

글마루한옥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도서를 구비한 자료실과, 책을 꺼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공간(책 이야기 마당), 책 놀이터인 꿈다라방, 강의나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식나눔방, 그리고 전통 한옥공간을 구경·체험할 수 있는 별동으로 구성돼

있다.

글마루한옥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중에서도 유아나 초등학교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곳에 소장된 도서는 2만 1000여권 정도로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여러 분야의 책이 구비돼있다.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부터 어학, 역사, 예술까지 다양하다. 요즘 인기 있는 교양과학 만화 시리즈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열람할 수도 있다.

터널 형태로 꾸민 열람실 내부 등 재미를 더한 공간도 이곳의 장점이기도 하다. '책 이야기 마당'이라는 공간은 자녀와 부모가 자유롭게 책을 읽기 좋도록 편안하게 꾸며져 있다. 천장이 통유리로 돼 있어 채광이 좋으며, 운치 있는 한옥 열람실에서 자연채광 아래 독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글마루한옥어린이도서관 관계자에 따르면 "책을 읽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정보검색대에서 검색해볼 수 있다. 열람실 서가에 하회탈이 걸려 있어 우리 전통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도 있다. 이곳은 어린이 뿐 아니라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 미리 구로구립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회원증을 발급해준다.

또한 글마루한옥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전통문화 강좌나, 전래놀이 강좌는 초등학교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딱지치기와 실뜨기 등을 배울 수 있다.

도서관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하절기 오후 7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 오후 5시이며, 정기 휴관일은 화요일이고, 대출 권수는 1인 3권(대출 기간 2주 이내)이다. **<한만수 기자>**

# 구로구, 굿네이버스 '100인의 꿈 지원단' 참여

구로구가 지난 8일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 서울 서부지부와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100인의 꿈 지원단'에 참여했다. '100인의 꿈 지원단'은 굿네이버스 서울서부지부와 협력해 서울 서남권 지역(구로·양천·금천·영등포·강서) 저소득 가정 아동 200명을 돕는 권역 내 공공기관, 기업체 대표 등 100인이다.

100인의 꿈 지원단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 메시지 전달 캠페인을 시작으로 직업교육,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나눔 캠페인 참여 등 각종 지원 활동을 펼친다. 이날 이성 구청장은 관내 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서를 작성한 후 '아이들의 소중한 꿈,



구로구가 지난 8일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 서울서부지부와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100인의 꿈 지원단'에 참여했다. <오른쪽 이성 구청장, 왼쪽 이 차혜진 지부장>

행복한 배움, 희망찬 미래를 응원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100인의 꿈 지원단'에 동참함을 밝혔다. 이성 구청장은 "아이 키우기 좋

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 고대구로병원 조금준 교수 '제1회 페링학술상' 수상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사진)가 최근 대한모체태아 의학회로부터 '제1회 페링학술상'을 수상했다.

'페링학술상'은 대한모체태아의 학회가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올해 신설한 상으로 연구업적 및 학회 기여도가 우수한 회원 1명을 선정해 수여한다.

조 교수는 최근 3년간 SCI급 논문 23편을 발표하는 등 모체태아 의학 학문 발전에 이바지해왔으며, 학회 내 고위험산모센터위원회 회원으로 전국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산모 및 태아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페링학술상 첫 수상의 영

예를 안았다. 한편, 조금준 교수는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모체태아의학을 세부전공했으며, 임신부 및 태아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기기 및 솔루션 제공기업 엠엔비메디텍 대표이사로서 활약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 우신고교서 감사패 받아 농구장 및 야외 문화예술공간 지원 공로 인정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고척 1·2, 개봉1동)이 지난 9일 우신고등학교 양광희 교장으로부터 문화체육공간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우신고등학교 우천정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은 양광희 교장 등 교사들과 학생회 임원단,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양 교장은 "학교 발전과 교육선진화를 위한 의정활동과 농구장 및 야외문화예술공간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커, 모든 학생과 교직원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재만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평소 교육에 대한



구로구의회 이재만의원이 우신고교 농구장·야외문화예술공간 완공에서 문화체육공간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 왼쪽이 우신고등학교 양광희 교장>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에 앞

장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이 의원은 "감사패를 받아 매우 기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보답 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소외계층 '현관문 자석모기장 달아드리기' 행사 구로구새마을회, 16개동 330세대 무료로 설치



새마을지도자 구로구협의회는 관내 어려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해 '질병 없는 건강한 구로구 만들기' 사업으로 '현관문 자석모기장 무료로 달아드리기' 사업을 펼쳤다.

(사)구로구새마을회 회장 직무 대행 겸 새마을지도자 구로구협의회(회장 정태충)는 관내 어려운 가정(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해 '질병 없는 건강한 구로구 만들기' 사업으로 '현관문 자석모기장 무료로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6월 26일 개봉3동을 시범동으로 새마을지도자구로구협의회 16개동 회장을 포함 동별 2명씩 참석해 현관문 자석 모기장 설치 시범행사를 가졌다. 시범행사 후 각동 별로 신청한

수량의 '자석모기장'을 배분해 6월 26일부터 6월28일까지 330세대에 대해 3일간 각동별 '현관문 자석모기장 무료로 달아드리기' 사업을 벌였다. 새마을지도자구로구협의회 정태충 회장은 새마을지도자 구로구 개봉3동협의회 회장으로 재임시 매년 어려운 이웃에 '현관문 자석 모기장 무료로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해 올해 새마을지도자구로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구로 관내 16개동 전동 추진을 확대했다. <박순옥 신도림동 시민기자>

##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구로구니눔네트워크

# 구로사랑 희망이음 캠페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은 지역사회 기부자와 취약계층 주민을 연결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지역맞춤형 나눔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015-176590-13-52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문의 02-867-1695 구로희망복지재단

# 안양천 산책로·자전거도로 밝아졌다

## 신정교~광명교 총 3.5km 191곳 LED 조명등 교체

“더 밝아진 안양천, 저녁에도 안전하게 걸어요!”

구로구가 안양천 191곳의 노후 조명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신설했다.

LED 조명 설치 지역은 신정교, 오금교, 구일역, 안양교, 광명교 등 약 3.5km 구간이다.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 176곳은 기존 노후 조명을 교체하고, 구일역 하부 15곳에는 LED 조명등을 신설했다.

해당 사업 구간은 조명등이 노후되고, 나무에 가려 어둡고 위험했다.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일역 하부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도개선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주민들이 뜻을 모아 ‘안양천 산책로 LED 조명등 교체’를 제안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됐다.

설치된 절전형 LED등은 전력



구로구가 안양천 191곳의 산책로와 자전거 길의 노후 조명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신설했다. 설치지역은 신정교, 오금교, 구일역, 안양교, 광명교 등 약 3.5km 구간이다.

사용량이 기존 노후등(나트륨등)보다 40% 정도 적어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명이 길고, 수은 및 방전용 가스 등은 사용하지 않아 환경보호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근 치수과장은 “이번 LED 교체 사업은 제안부터 예산확보 등 전 과정이 주민들의 참여로 완성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한층 밝아진 안양천에서 주민들이 안전한 산책을 즐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박수연 서울남부교도소장 ‘어린이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박수연 서울남부교도소장은 지난 7월 12일 어린이 보호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안전 범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2020년 12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공익 릴레이 캠페인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포어 챌린지 피켓을 든 사진

을 사회관계망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박수연 소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동참을 통해 스크린에서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다음 릴레이 주자를 여주교도소(소장 남준락)로 지정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할 예정이다.

〈김유권 기자〉



박수연 서울남부교도소장이 지난 7월 12일 어린이 보호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 가스 안전점검 및 ‘타이머콕’ 전달식

## 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 귀뚜라미에너지와 구청서



지난 13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열린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주)귀뚜라미에너지와 가스 안전점검 및 안전기기 전달식.〈왼쪽부터 이성 구청장, 김종문 가스안전소 서울남부지사장, 이명호 귀뚜라미에너지 대표〉

구로구가 지난 13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주)귀뚜라미에너지와 가스 안전점검 및 안전기기 전달

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10월까지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정 100여 가구에 스마트 가스호스, 타이머콕, 휴

즈콕 설치 등 맞춤형 가스 안전기기(타이머콕)를 보급 및 점검키로 했다.

이번 활동에서 구로구청은 대상자 선정과 사업 홍보, 가스안전공사는 가스 안전기기 보급 업무총괄과 가스 안전기기 설치 검수 및 점검, 귀뚜라미에너지는 예산지원과 설치를 담당하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달식은 이성 구청장을 비롯해 김종문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장, 이명호 귀뚜라미에너지 대표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이성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건네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구로구도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 유희상의 열린 칼럼



본격적인 더위가 다가왔다. 기상대에서는 올해는 열섬현상으로 더위가 유난히 길어지고,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더위도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다.

금수저들에게 더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동을 할 때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차량이 있고, 집에서도 긴 소매를 입고 있을 정도로 에어컨을 풀가동

슬기롭게 보내는 지혜가 있었다. 더위를 이기는 방법 중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는 말이 있다. 더위를 열로 다스린다는 이열치열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조상들의 뛰어난 지혜이다.

# 이열치열(以熱治熱)에 대하여 ①

한다. 흙수저들에게 더위는 한겨울의 칼날 같은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

추우면 옷을 껴입으면 되지만 더위는 감당할 도리가 없다. 선풍기는 한 시간만 틀어도 더운 바람을 뿜어내고, 방안은 찜통이 따로 없다. 그저 어서 빨리 밤이 깊어서 더위가 한풀 꺾이기만 기다리며 진땀으로 목욕을 하며 세

를 타는 증세가 나타나기 쉽다. 여름철이면 외부의 높은 기온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부 근처에는 다른 계절보다 20~30% 많은 양의 피가 모이게 된다. 이에 따라 체내의 위장 등 여러 장기는 피가 부족하게 되고 몸 안의 온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식욕이 떨어지면서 만성피로 등 여름 타는 증세가 나타나기 쉽다.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더위를

〈본지 회장〉

# 할리스, 구로경찰서와 지역사회공헌 위한 MOU 체결

## “범죄예방 등 안전한 사회 만들기 적극 협력할 것”

커피전문점 할리스를 운영하는 케이지 할리스에프앤비가 구로경찰서와 함께 안전한 사회 만들기

에 나선다. 케이지 할리스에프앤비는 “구로경찰서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2



커피전문점 할리스가 지난 2일 구로경찰서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경찰청 소속 근무자다.

신유정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 대표는 “이번 협약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홍보 캠페인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라며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커피트럭을 운영하오니 경찰 관계자뿐 아니라 민원인들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돌음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학/사육판 양장 / 325쪽/값12,000원/ 발행일 2013년 3월 5일  
문의 : 010-9096-1144

누가 차지철에게 돌음 던지랴!

# 중소기업·소상공인 59억 용자 지원

## 중기육성기금 30억원, 시은협력자금 28억원 규모 중소기업 2억, 소상공인 5000만원까지 대출

구로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총 58억9600만원 규모의 용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용자 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나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0억 7000만원 규모로 연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28억 2600만원 규모로 은행 대출금리가 1.8%를 초과하는 경우 구청이 은행 금리의 최대 연 1%를 보전해

준다. 상환 조건은 모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연 2회)이며, 중소기업은 2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접수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11일까지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매월

초 5일간(주말, 공휴일 제외)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구로구는 최근 4년 내 용자 지원 신청 여부, 신청 금액, 우대항목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올 9월부터 용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김한수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용자 지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 오류초등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

## 김인제 시의원 “5년간 총 348억 투입, 2026년 완공”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오류초등학교가 미래학교로의 전환 프로젝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형 뉴딜’ 과제 중 하나로 ▲미래 변화에 맞는 학교 공간 혁신 ▲건물 에너지 절약과 학생 건강을 고려한 제로 에너지 그린학교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교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등이 추진되며,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조2천억원을 들여 우선 40년 이상 경과한 시설 노후 학교부터 개축·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오류초등학교는 1943년 5월에 설립, 올해로 만 78년된 공립학교로, 현재 772명의 학생과 52명의 교원을 갖춘 역사 깊은 학교다.



오류초등학교는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개축 규모 10,913㎡에 5년간 348억원(연평균 69.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026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완공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오류초등학교 인근은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하여 학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필요성이 더해져 교육 수요가 상당히 높은 지역중 하나”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교육의 거점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교육 대전환’이란 목표가 달성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음식쓰레기 개별계량기 112대 추가 보급

## 2016년부터 공동주택 61개소 33,868세대 총 461대 설치

구로구가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RFID 개별계량기 112대를 추가 보급했다. 구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RFID) 설치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개별계량기(RFID)는 카드를 사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배출량이 자동 측정돼 세대별로 버린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높고,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해 해충 예방과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구로구는 개별계량기(RFID) 설치사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61개소, 33,868세대에 총 461대를 보급했다. 올해는 공동주택 14개소 8,813세대에 총 112대를 지원했으며 주



구로구가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 설치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이번에 112대를 추가 보급했다.

민 동선, 거점간 거리 등을 고려해 70세대당 1대씩 설치했다. 이에 앞서 구로구는 지난 5월 관리주체가 있는 14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개별계량기(RFID) 설치 신청을 받았다. 배출량, 설치장소, 신청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임보상 청소행정과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주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개별계량기(RFID) 설치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구로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량배출사업장 발생 억제·처리실적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구청 청소행정과 02-860-2894. <채홍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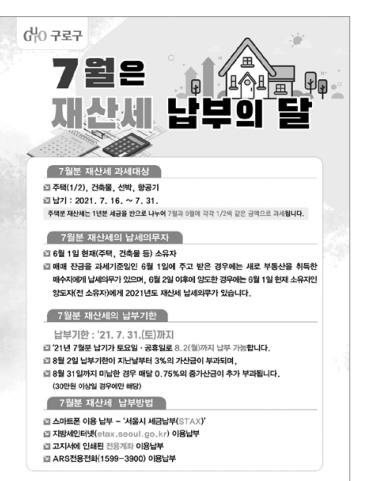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천만원 지원

구로구가 관내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구는 신규 사업 개발, 시제품 제작 등 기업 발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인증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단, 올해 국·시비 사업개발비 또는 혁신형 사업비 지원 기업은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구비서류를 구청 일자리지원과에 제출하고 이메일(bandibool@guro.go.kr)로 전자파일을 보내면 된다. 지원 대상,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하면 된다. 구로구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등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해 7월 중 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문의) 구청 일자리지원과 860-2622. <김유권 기자>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구로구가 7월 재산세 납부 안내에 나섰다. 납부 대상은 올 6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9월에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16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홈페이지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 ▲고지서 전용계좌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신한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사 앱으로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로구는 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소식지 등을 통해 7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문의) 구청 부과과 860-2756~2763, 2778~2786. <채홍길 기자>

# “폐비닐·폐페트병 올바르게 배출하세요”

구로구가 폐비닐·폐페트병 분리배출제도 정착을 위해 주민 홍보에 나섰다. 구는 “재활용품 선별을 저하시키는 폐비닐과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에 적합한 투명페트병을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9월 30일까지 집중 홍보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구로구가 재활용품 선별을 저하시키는 폐비닐과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에 적합한 투명페트병을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30일까지 집중 홍보한다.

비닐류는 깨끗이 씻어 투명봉투에 모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이물질로 오염된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폐페트병은 라벨·내용물 등을 제거한 뒤 순수 투명 페트병만 배출할 수 있다. 구로구는 관내 16개 동마다 재활용 품질개선 지원인력을 배치해 주민들에게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폐비닐·폐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환경보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4단계’ 불구 관내 확진자 폭증세

## 8일간 160명 급증, 하루 20명 꼴... 누적 1,945명

### 서울 확진자 5만8,646명-사망자 527명



구로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후에도 확진자가 급증, 신규 확진자가 8일간 160명이 늘어나 19일 현재 누적 1,945명을 기록했다. (사진은 구로역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구로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후에도 확진자가 급증,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지난 12일 13명, 13일 28명, 14일 15명, 15일 24명, 16일 25명, 17일 24명, 18일 19명, 19일 12명을 기록하는 등 8일간 모두 160명이 늘어나 하루에 평균 20명 꼴이다. 19일 현재 누적 1,945명을 기록했다.

지난 16일 G밸리단지내 모회사 근로자 1명이 확진되어 직원 33명을 전수검사 결과 17일 모두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같은층 타회사 근로자 224명을 검사중이다. 나머지는 확진자는 대부분 타

구 확진자 접촉과 확진자 발생 장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이다.

사망자는 12명 그대로이며 1,686명이 완치 퇴원, 247명이 치료중이다.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809명, 해외입국자 301명 등 모두 1,110명이다.

한편 구로방역당국은 지역 내 호프집, 노래방, 고대 구로병원 외래병원 신축 건설현장 방문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구는 15일 재난문자를 통해 “1~13일 구로 2·3·4동, 가리봉동 소재 호프집, 노래방, 건설현장 방문자는 거주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자발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밝혔다.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미소들요양병원 관련 47명, 오류동 해적집 관련 42명,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개봉동 옥(유전)사우나 16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4명, 청하식당 및 오류동 24시사우나 관련 12명, 중국동포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민전 산후조리원 관련 7명, 신도림동 핀포인트타워(콜센터) 관련 5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타시군구 접촉자 1,184명, 해외 입국 15명, 기타(조사중) 54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19일 현재 모두 5만8,646명으로 사망자는 527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강남구가 제일 많은 4,101명 ▲송파구 3,527명 ▲관악구 2,855명 ▲강서구 2,757명 ▲서초구 2,664명 ▲노원구 2,644명 ▲은평구 2,430명 ▲동작구 2,399명 ▲중랑구 2,397명 ▲성북구 2,370명 ▲강동구 2,283명 ▲영등포구 2,262명 ▲동대문구 2,077명 ▲마포구 2,052명 ▲양천구 1,960명 ▲광진구 1,947명 ▲구로구 1,945명 ▲성동구 1,759명 ▲도봉구 1,753명 ▲용산구 1,716명 ▲강북구 1,638명 ▲서대문구 1,455명으로 22개구가 1천명을 넘어서다. 이어 ▲금천구 991명 ▲종로구 943명 ▲중구 862명을 기록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개봉3동 목감천 민원 현장’ 방문

## 목감천 일대에서 발생 ‘어류 폐사’ 원인 신속 규명 당부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 15일 개봉3동 목감천 어류폐사 민원 현장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어류폐사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구청 관계 공무원, 민원인이 동행했다.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 15일 ‘개봉3동 목감천 어류폐사 민원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목감천 상류에서 개봉교에 이르는 목감천 일대에 다량의 물고기가 폐사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구청 관계 공무원, 민원인이 현장에 동행했다.

목감천은 구로구와 경기도의 경계를 이루는 하천으로 시흥시 목감동에서 시작하여 부천과 광명, 구로를 거쳐 안양천으로 흘러가는 안양천의 제1지류이다. 그동안 목감천을 접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수질 개선, 하천 정화활동 등 생태 환경 복원에 노력한 결과, 현재 모습에 이르러 주민들의 자연 휴식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현장에서 박 의장은 동행한 관계 공무원을 통해 어류 30여 마리가 폐사한 것과 현장 수온이 일반 하천수온보다 높은 32도 정도로 측정 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박의장은 최근 급격한 기온상승으로 인한 수온 상승이 이번 폐사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정밀 수질 분석, 하천 순찰 등을 통해 물고기 폐사 원인을 보다 면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줄 것을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했다. 또한 정밀 수질분석 결과에 따라 오염원인을 제거하는 등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개봉교와 개봉교 부근 하천수 시료를 채취하고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결과는 2주 후에 나올 예정이다.

현장활동을 마치고 박 의장은 “구로구의회에서는 목감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물의 서식처 복원을 위해 목감천 정화활동에 더욱 앞장서겠으며 구민이 찾는 쾌적한 도심 속 휴식공간의 생태하천 조성을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구로주민 1차 백신접종률 38%

## 백신부작용 사례도 늘어 사망 4건 등 누적 766건

### 26일부터 55~59세 ‘모더나’ 백신 접종

구로구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8일 현재 관내 만18세 이상 내·외국인을 포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는 약 33만 5천여명이다. 구로구 전체 주민 43만여명 중 77%다.

이 가운데 지난 7월18일 현재 만 60세 이상 어르신 등 1차 접종을 마친 주민은 12만7,505명으로 접종 대상 주민 33만 5천여명의 38%가 1차 접종을 마쳤다. 2차 접종을 마친 주민도 3만8,887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접종대상자라면 보면 1차 16만221명 가운데 12만7,505명이 접종을 마쳐 78%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접종률은 평균 75.2%다. <채홍길 기자>

한편 오는 7월26일부터 55세~59세 주민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이 관내 105곳 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된다.

아울러 55세~59세 접종 예약률은 2만3,353명이 예약, 전체 2만 9,555명의 79%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부작용 신고 사례도 늘어나 지난 3월 첫 백신 접종 이후 관내 백신 부작용 건수는 766건으로 집계됐다.

구로보건소가 밝힌 백신 부작용 신고 766건을 증상별로 보면 18일 현재 △사망 4건 △아나필라시스 8건 △기타 6건 △경미 증상 748건으로 집계 됐다. <채홍길 기자>

### 한국119청소년단 구로지회 설립 총회

구로소방서(서장 김용근)는 지난 6일 특수법인 ‘한국119청소년단’ 구로지회 설립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2일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17조의6에 따라 ‘한국119청소년단’이 특수법인으로 등기됨으로써 소방서 단위의 구로지회를 설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119청소년단’은 다양한 안전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봉사·친선·소방의 3대 가치를 전달하고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설립된 단체다.

소방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고 한국119청소년단 정관, 지회 운영규정, 총회의결서·심사표를 초대지회장에게 인계했다.

# 강풍에 고척동 골프연습장 철기둥 무너져



16일 저녁 7시쯤 구로구 일대에 초속 14m의 강풍이 불면서 골프장 철기둥이 무너졌다.골프장을 지탱하는 철기둥이 기역자로 꺾이면서 전깃줄 위로 쓰러져 고척동 일대 1,30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전기 공급은 한 시간 반 만에 재개됐지만, 아파트 주민 10명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채홍길 기자>

# 제9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성황리 막 내려

## 신도림 테크노마트 그랜드볼룸서 레드카펫·시상식·폐막 선언 공헌상·감사패·관객상·장편-단편경쟁·구키프콘텐츠랩 등 시상

제9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가 지난 7월 7일 신도림 테크노마트 그랜드볼룸에서 폐막식을 끝으로 일주일간의 영화축제를 마무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폐막식은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gukiff.kr)를 통해서도 생중계 됐다.

아나운서 이병희, 가수 겸 배우 양동근, 전 아나운서 안수민이 사회를 맡은 행사는 영화제 관계자 축하 영상, 본선 주요작품 하이라이트 영상, 시상식, 폐막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배우 강신일, 이미영, 달시 파켓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레드카펫을 밟았으며 레인보우 합창단, 입선화, 이진아 등이 축하공연도 펼쳤다.

'다시 그리는 세대'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영화제는 98개국, 2,130편의 작품들이 출품됐다. 이 중 예심을 통과한 187편(장편 42편·단편 145편)이 심사위원단의 온라인 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날 행사는 먼저, 올해 생킨 구키프 공헌상, 특별 공헌상, 관객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구키프 공헌상은 어린이영화 번영에 애쓴 분들을 위해 준비된 상으로 프로듀서상은 영화사 '아토 Ato' 김지혜 대표, 감독상은 윤가은 감독, 배우상은 강신일 배우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별 공헌상은 어린이영화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후원인에게 전하는 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한 (주)플메이드 이원일 대표가 수상했다.

관람객 투표에서 최다득표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관객상으로는 '메리 좀 찾아줘'가 선정됐다.

장편 키즈비전 부문 배우상은 '안녕! 타피르(배우 런 인 바이)' 감독상은 '세상을 드는 소녀들(감독 마에 자에드)' 비전상은 '올리버 블랙(감독 타우픽 바버)' 장편 키즈포커스 부문 배우상은 '나를 구하지 마세요(배우 조유하)' '열아홉(배우 손영주)' 감독상은 '종착역(감독 권민표·서한술)' 포커스상 '성적포의 김민영(감독 이재은·임지선)'이 선발됐다.

단편 키즈크리에이티브 부문 배우상은 '창진이 마음(배우 노이한)' '미라(배우 지율리나 아르덴테)' 신인감독상은 '안녕, 부시맨(감독 김용천)' '메시(감독 모즈 타바 로스타미 파르)' '하나 때문에(감독 김달리)' 감독상은 '남쪽을 향해(감독 유안 유안)' 크리에이티브상은 '창진이 마음(감독 궁유정)' 단편 키즈챌린지 부문 재능상은 해외작 'E와의 대화(감독 이자벨라 스트리랜드)' '여행하는 바람(감독 브라질 이카 푸이 IMA 사립학교의 학생들)' '네번째 각각(감독 파블로 이란조 피네다)' 국내작 '방송실에서 생긴 일(감독 양운술)' '꼬마 마녀의 이중생활(감독 나운유)' '누구라도 빛나(감독 옹골찬 Cine de 대연)' '좀비탈출(감독 김유민)' '육살해의

특별한 하루(감독 조단영)' '놀리지 안개 해주세요(감독 김서운)' '행복해요(감독 김유나)' '환경의 세포들(감독 안예슬)' 챌린지상은 '비 프리(감독 휴고 제르)' '피구왕(감독 슬기로운 초등생활)' 어린이집협회위원상은 '피구왕'이 선정됐다.

구키프콘텐츠랩 부문 후반제작 지원은 '안녕, 슬리퍼(감독 정빛아름)' '야행성(감독 박지수)' 사전제작지원 '없는 이름(감독 안도영)'이 뽑혔다.

영화제 기간에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됐다. 영화 상영 후 패널들이 참석해 아동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제적 포럼, 구키프톡, GV(관객과 대화), 라운드테이블 등과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에서 키즈 포스터 전시회,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영화캐릭터 만들기, 특수분장 체험, 가면 만들기 등 구키프 체험부스 행사가 마련됐다.

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이성 구정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막식, 상영 등을 온라인으로도 진행하면서 영화제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됐다"며 "어린이들이 주체적으로 세상을 그려나갈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김한기 집행위원장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지켜줘야 한다"며 "내년에는 한자리에 모여 즐길 수 있는 영화제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채홍길 기자)



제9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가 지난 7월 7일 신도림 테크노마트 그랜드볼룸에서 폐막식을 끝으로 일주일간의 영화축제를 마무리했다. <사진은 1일 열린 개막식>

## 제41회 구민 독서경진대회 독서감상문 및 편지글 모집

새마을문고구로구지부(회장 김성남)는 제41회 구로구민 독서경진대회 독서감상문 모집 및 편지글을 모집 하고있다.

매년 개최하는 구로구민 독서경진대회는 단계별로 실시하는 독서경진대회로 구로구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은 서울시대회에 출품하며, 서울시대회에서 수상한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새마을문고중앙회에서 개최한 '대통령기 제41회 국민독서경진 중앙본선대회'에 출품된다.

구로구민 독서경진대회 독후감과 편지글 모집은 오는 9월 1일까지 새마을문고구로구지부와 각동 새마을작은도서관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주관 : 새마을문고구로구지부  
▲후원 : 구로구청, (사)서울구로구새마을회

① 독후감 부문 (단체·개인)  
- 도서 : 자유롭게 선정  
- 대상 : 초등·저학년부, 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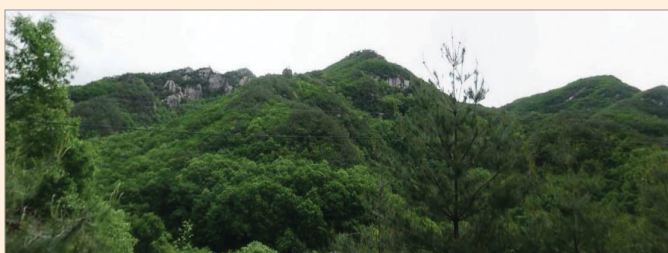


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 새마을작은도서관부, 일반부, 특별부  
※ 온실가스 배출제로(탄소중립) 관련 주제선정 권장

② 편지글 부문 (개인)  
주제 : 자유롭게 선정  
대상 :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특별  
△원고길이  
- 초등부 : 200자 원고지 6매 내의  
- 중·고등부 : 200자 원고지 10매 내의  
- 일반부 : 200자 원고지 12매 내의  
△접수기간 : 2021. 6. 1~ 9. 1까지  
- 제출처 : 새마을문고구로구지부 ☎ 02)856-5955  
각동 새마을작은도서관  
- 주 소 : 구로구 구로동로 141, 5층.  
(염복자 수궁동 시민기자)

## 이제 산·임야가 대세이다

# 임야 1평 3,000원... 서울 땅 1평이면 1만평을 산다!



\*산나물·산약초를 키워 보시지 않겠습니까?

\*장뇌삼 씨를 뿌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남의 산(임야)에서 산나물·산약초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소나무 한그루에 500만원부터 3억원까지 거래가 되는 시대입니다.
- 쓸모없는 나무는 베고, 쓸모있는 나무를 가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가족 캠핑장을 조성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 전 세계는 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업에서 강제로 '탄소배출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산림청은 매년 전국 사유지 임야를 2천여만평씩 국유림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 임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010-9096-1144